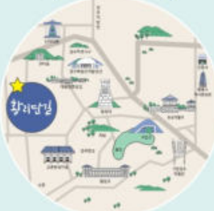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 황리단길

경주는 알고 갈수록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여행지다.
경주 관광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황리단길**과 함께 풍성한 관광 아이템으로 넘쳐나는 동부사적지 일대 관광지를 하루 만에 정복해 보자.

황리단길도 즐기고! 경주 유적지 관광도 즐기고!
일석이조 관광투어!



※ 그림지도 특성상 실제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릉원 사적 제512호

경주는 고대 왕들의 묘가 묻혀 있는 능의 도시이기도 하다.
황리단길 바로 옆에 위치한 대릉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고분군으로, 천마도로 유명한 천마총과 금관이 출토된 황남대총 등 23기의 독특한 대형 고분들이 밀집해 있다. 소담스레 정리된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빽빽하게 늘어선 소나무와 고분 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자리한다. 대릉원을 나와 [illegible] 돌담길과 고즈넉한 한옥 골목사이를 돌아보다 보면 천년의 시간을 훌쩍 거슬러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 경주시 계림로 9
- 054-750-8650
- 이용시간 : 09:00~22:00 (연중무휴)

## 경주교촌마을

교촌이라는 이름은 '향교가 있는 마을'을 뜻한다. 조선시대 전통 한옥마을을 복원한 교촌마을은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대표하는 경주 최부자의 고택을 비롯해 멋스런 가옥과 맛집이 즐비하다. 골목마다 돌담이 멋스럽게 이어지고 고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곳에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된다.

- 경주시 교촌길 39-2
- 054-779-6834

## 경주 최부자댁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최부자댁은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집안이다.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 6가지의 가훈을 실천하며, [illegible] 가난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온 최씨 집안은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택 인근에 자리한 경주최부자아카데미에서는 최부자의 실천적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

- 경주시 교촌안길 19-21
- 054-774-0202

## 경주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교육기관이다. 이 자리는 원래 신라 신문왕 2년에 처음 세워진 국학이 있던 곳이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향교로 나주향교와 함께 향교 건물 배치의 표본이 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대성전과 동무 서무는 공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받드는 곳이다. 강당인 명륜당과 동재 서재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거하는 시설이다.

- 경주시 교촌안길 27-20

## 계림 사적 제19호

계림은 원래 신라를 건국할 때부터 있던 숲으로 시림(始林)이라고 불렀다.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鷄林)이라 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탈해왕 4년(60)에 왕이 시림 속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살펴보니 나뭇가지에 금궤가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밑에서 울고 있었다. 금궤 속에 사내아이가 있어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여겨 태자로 삼았다. 아이라는 뜻의 '알지'라는 이름을 주고, 금궤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 울창한 고목과 함께 신비로운 정취를 지닌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1803)에 세운 김알지 탄생에 대한 비(碑)가 남아있으며, 신라 17대 내물왕의 능(사적 제188호)이 있다.

- 경주시 교동 1

## 첨성대 국보 제31호

신라 선덕여왕 때 축조되어 1400여년이나 지났어도 그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으며, 뛰어난 조형미와 함께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첨성대를 바라보는 풍경도 일품이지만 어슴푸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 빛깔의 조명이 더해져 또 다른 얼굴을 선보인다. 고아한 곡선이 부각되며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한다.

- 경주시 첨성로 140-25

Tip

###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천연기념물 제49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비단벌레는 초록빛 날개가 아름다운 곤충으로 신라시대의 장식 유물에 사용되었다. 비단벌레 전기자동차는 첨성대~교촌마을~월성 홍보관 일원을 돌며, 운행 중 제공하는 문화해설방송과 영상 관람을 통해 유익하고 편안한 경주여행이 되도록 돕는다. 아이와 함께 온 여행이라면 이용해 보는 것을 더욱 추천한다.

- 경주시 황남동 113-15 (매표소)
- 054-750-8658
- 이용시간 : 09:00~17:25
  (연중무휴, 1회당 35분 가량 소요)
- 입장료

|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
| 4,000원 | 3,000원 | 2,000원 |

## 경주 월성 사적 제16호

월성은 신라 궁궐이 있었던 도성이다. 성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하여 반월성, 신월성이라고도 하며, 왕이 계신 성이라 하여 재성(在城)이라고도 불렀다. 2014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다. 발굴현장 주변으로 관람로와 데크가 마련되어 발굴사업도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좀 더 [illegible]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월성이랑'을 신청하면 고고학 현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인 천년 신라의 위대한 현장을 돌아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 경주시 인왕동 449-1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경주 여행을 할 때에 첫 번째 방문지로 들러 미리 공부한 뒤 곳곳의 문화유산을 만나면 알찬 여행이 될 것이다. 박물관은 대표 전시관인 신라역사관을 비롯해 신라미술관, 월지관 등의 상설전시관 3관과 기획전시가 열리는 특별전시관으로 크게 구성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하나가 더 있다. 국보급 문화재가 박물관 야외에 있다. 야외전시장을 돌아보며 성덕대왕 신종과 고선사지 삼층석탑 등 귀한 유물을 찾아 보자.

- 경주시 일정로 186
- 054-774-0202

## 월정교

교촌마을을 지나 남천으로 이어지는 경주의 새로운 명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한다. 고대 신라 교량 건축기술의 백미로 교각 자체도 멋지지만 양쪽 끝에 문루가 위엄있게 자리잡고 있는 [illegible] 장관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개방한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서려있는 월정교에 오르면 교촌마을의 풍경이 또 색다르게 다가온다. 날이 저물어 화려한 조명이 더해지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동궁과 월지와 더불어 최고 야경명소로 꼽힌다.

- 경주시 교동 274

## 동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보지 않고는 경주 여행을 말할 수 없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이다.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도 쓰였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된 동궁과 월지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누각과 연못, 숲이 불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낸다. 연못에 반사된 전각과 나무의 생생한 빛이 아련한 느낌을 불러온다. 시간이 멈춘듯한 기분에 한참동안 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

- 경주시 교동 274
- 054-750-8655
- 입장료
- 09:00~22:00 (입장마감 21:30)

| 개인 | | | 단체 | | |
|---|---|---|---|---|---|
|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 3,000원 | 2,000원 | 1,000원 | 2,400원 | 1,600원 | 800원 |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 경주, 가볼만한 곳

발길마다 시선마다 문화유산으로 가득찬 도시. 이천년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도시의 개성이 된 역사문화도시. 여기에 새롭게 들어선 테마파크와 복합문화 체험공간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 1번지 경주를 구석구석 둘러보자.

## 불국사 & 석굴암

불국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의 발원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과거·현재·미래의 부처가 사는 정토(淨土), 즉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곳이다.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최근까지 5회 연속 선정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

- 경주시 불국로 385
- 관람시간 : 연중무휴 (주중 : 오전 9시~오후 5시 /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8시~오후 5시)

## 화랑마을

화랑마을은 경주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화랑의 정신과 문화를 재조명하여,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체험관광, 휴양과 문화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 도심과 멀지 않으며 한옥 체험관과 야영장, 화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전시관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하기 좋은 코스 등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4차례 국궁 체험 운영도 하고 있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 좋은 곳이다.

- 경주시 석장로 123(석장동)
- 수련 : 054-760-2412~18 / 체관 : 054-760-2432
  [illegible] 야영장 : 054-760-2444 / 전시관 : 054-760-2442

## 동궁원

대한민국 부동의 관광 메카 경주에서 이제 필수 코스로 자리잡은 사계절 체험문화공간이다. 기존의 유적지 관광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식물을 직접 체험하고, 살아있는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관광으로 새롭게 진화하는 경주 관광 트렌드다. 옛 안압지였던 동궁과 월지에 우리 조상들이 최초로 진귀한 화초와 새, 짐승을 길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신라의 난생설화를 스토리텔링하여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놓았다. [illegible]

- 경주시 보문로 74-14
- 054-779-8725
- 개장시간 (연중무휴)
  동궁원 09:30 ~ 19:00 / 버드파크 10:00 ~ 19:00

## 경주엑스포대공원

찬란했던 서라벌의 모습과 현재의 경주, 미래 관광 콘텐츠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신라역사문화를 첨단기술을 통해 재해석해 선보이는 콘텐츠와 넓은 야외공간이 꾸미는 자연 친화적인 힐링환경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할 만하다. 황룡사 9층 목탑의 실제 크기 82m를 재현한 경주타워와 솔거미술관, 전국 최초의 야간 체험형 산책코스 루미나 나이트워크까지 [illegible] 경주에서의 [illegible] 보내고 싶다면 경주엑스포대공원을 강력 추천한다.

- 경주시 경감로 614
- 054-740-3011

## 양동마을

신라 유물과 유적으로 대표되는 경주지만 [illegible] 가장 한국적인 마을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양동마을이 있다. 다소 상업적이고 [illegible] 다른 한옥 마을들과는 달리 때 묻지 않은 경북의 자연환경 속에서 오백여년 넘게는 세월 동안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 종가가 살고 문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와가와 초가의 낮은 [illegible] 사이를 걸으며 긴 역사의 정취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유서 깊은 전통의 역사마을이 주는 색다른 감성과 고요한 정서는 여행의 또 다른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134
- 054-762-2630
- 관람시간(연중무휴)
  하절기(04월~09월) : 오전 9시~오후 7시(입장은 오후 6시까지)
  동절기(10월~03월) : 오전 9시~오후 6시(입장은 오후 5시까지)

## 옥산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로 추앙받는 회재 이언적 선생 (1491~1553)의 학문을 기리는 단아한 옥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옥산천 주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회재 선생이 말년을 보낸 독락당(보물 제413호)은 계곡과 어우러진 한옥건물이 보여주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독락당의 별당인 '계정'은 시원한 계곡의 아름다움을 한껏 끌어안은 구조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천연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된 독락당 조각자나무도 놓치면 안되는 포인트다. 한편 옥산서원은 2010년 7월에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2019년 7월에는 서원 9곳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다시 등재되었다.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 경주읍성

월성이 신라 천년을 상징하는 유적이라면 읍성은 신라 이후 천년을 상징하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읍성은 고려시대에는 동경유수관(東京留守官)이, 조선시대에는 경주부아(慶州府衙)가 읍성내에 있어 지방통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고려 현종 3년(1012) 토성으로 축성된 후 여러 차례 수리와 개축을 거친 후 일제 강점기와 무계획적인 파괴와 근현대의 도시개발 사업 속에서 그 옛 모습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지만, 경주시에서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더불어 고려와 조선시대 성곽도시 경주의 옛 모습을 갖추고, 시가지의 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경주읍성 복원사업이 진행 됐다. 현재 완료된 동성벽 외에도 2030년까지 북문인 공진문과 북성벽을 복원할 계획이다.

- 경주시 동부동 2-8

## 양남주상절리 파도소리길 & 전망대

양남 주상절리는 양남면 읍천리의 해안을 따라 발달한 주상절리 군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 중에서도 압권은 둥글게 펼쳐진 부채꼴 주상절리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주 희귀한 형태로, 지난 2012년 9월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되었다. 이 아름다운 주상절리군을 곁에 두고 거닐 수 있는 1.7km 거리의 부담없는 해안산책로인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상절리 전망대에 오르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양남주상절리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498-13
- 운영시간 : 09:30~18:00
- 입장료 : 무료
- 주차정보 : 읍천항 공용주차장(무료)
- 주변관광지 : 읍천항 벽화마을, 하서항, 하서해안공원, 관성솔밭해변

## 문무대왕릉

문무대왕릉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라 제30대 문무왕(661~681 재위)을 장사지낸 곳이다. 바닷가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중릉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이 "내가 죽은 뒤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라고 유언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죽어서까지 [illegible] 나라를 지키려 한 문무대왕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곳이다. 바다 가득한 해무를 헤치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수중릉을 비상하는 갈매기의 군무를 볼 수 있어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색이 없다. [illegible]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30-1

## 오류캠핑장

감포읍 고아라 해변 오류캠핑장은 100년 이상 된 해송숲속에 [illegible]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신형 카라반 [illegible] 사이트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샤워장, 주차장 등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근처에 국도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연동어촌체험마을, 감포깍지길,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등 청정 경주바다 100리길의 해안 관광지와 함께 아름다운 해변과 해안에 숨은 다양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캠핑장이다.

-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382-7
- 054-750-8600

## 토함산자연휴양림

경주 3대 삼산의 하나인 토함산 남쪽 기슭 깊은 계곡에는 소나무 등 침엽수림 외에 여러 종류의 활엽수와 수목이 자생하는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있다. 등산로를 비롯해 숲속 완만한 경사면에 야영장, 숲속의 집, 삼림욕장, 전망대, 물놀이장, 체육시설(운동장, 농구장) 등을 갖추고 있어 숲속에서도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지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자연의 숲으로 떠나보자.

-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208-45
- 054-750-8700